초저금리에…고수익 미끼 다단계 사기 극성

광양경찰, 외환투자 속여 100명에 58억 가로챈 일당 적발

총책 등 2명 지명수배…광주서도 노인 52명 등친 3명 검거

최근 초저금리와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외환거래 등 투자를 통한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들을 모집해 투자금을 가로채는 다단계형 유사수신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사기단은 주로 주부와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저지르고,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을 선순위자들에게 일정 부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서민들을 속이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피해 규모는 물론 조직도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광양경찰은 8일 유령회사를 설립해 외환거래에 투자한다고 속여 100여명으로부터 58억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로 이모(여·65)씨를 구속했다. 또 공범 추모(여·5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총책 정모(54)씨 등 2명은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4월께 총책 정씨와 함께 '클럽1024'라는 투자동호회 형태의 유령회사를 설립해 광양지부장을 맡은 이씨는 'FX마진거래(외환차익거래)로 원금보장과 함께 매달 투자금의 10%를 36개월 동안 배당한다'고 속여 지난해 11월까지 광양지역 주민 100여명으로부터 5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지부장인 추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11명을 상대로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씨 등은 더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1년간 약속한 배당금을 매달 지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후투자자들의 원금을 이용했다. 초기 배당금에 속아 모두 7억원을 투자한 가족도 있다.

이들은 더 많은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투자자 유치시 수당을 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했으며, 부도로 방치된 미분양 아파트 신규 분양 사업, 쇼핑몰 물품 구매, 특허 출원 기업 등에 대한 투자도 병행한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광주동부경찰도 지난 1월 '클럽1024' 광주지부장을 구속하고, 간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총책 정씨는 광주를 본부로 전국 22개 지부를 운영하면서 2년 동안 260억원 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정씨 검거에 나서는 한편 전국지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고수익을 미끼로 노인들의 노후자금을 가로챈 일당도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동부경찰은 지난 1월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60~70대 노인 52명으로부터 투자금 4억3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김모(53)씨를 구속하고, 진모(5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서울에 있는 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상인들에게 투자금을 고리로 빌려줘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매일 10%의 이자를 14일간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주부와 노인 등 서민들을 유혹하는 유사수신빙자사기 조직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사업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겠다"고 조언했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지역에서 적발된 유사수신업체는 지난 2013년 7건(25명), 2014년 9건(29명), 지난해 11건(28명)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남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1건에서 지난해 3건으로 늘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양=김경원기자 kkw@kwangju.co.kr

책 훔치는 노인들

"책 읽고 싶어서"…중고서적 절도 2명 잇따라 붙잡혀

광주의 대형 중고서점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중고서적을 훔친 노인 2명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특별한 전과가 없던 두 노인이 책을 훔친 이유는 '책이 읽고 싶어서'였다. 나이가 들어 특별한 수입이 없던 이들은 결국 '독서'라는 취미를 즐기기 위해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가 전과자 신세가 됐다.

광주동부경찰은 8일 대형 중고서점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중고서적을 훔친 혐의(절도)로 유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시40분께 광주시 동구의 한 대형 중고서점에서 6800원 상당의 책 1권을 훔치는 등 지난 2013년 8월부터 최근까지 52차례에 걸쳐 모두 54권의 책(49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경찰에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싶은데 살 돈은 없고, 아직 취업을 못한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훔치게 됐다"고 진술했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유씨는 자녀와 작은 주택에 세들어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젊은 시절 학원에서 한자를 가르치는 등 한자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훔친 책도 대부분 중국어와 일본어 원서였으며, '그들의 문학과 생애'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언문세설' 등 문학서적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앞서 지난해에도 수십권의 책을 훔친 60대 노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배모(67)씨는 같은 매장에서 40차례에 걸쳐 40권의 책(20만원 상당)을 훔쳤다가 지난해 12월 광주동부경찰에 붙잡혔다.

특별한 직업없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배씨가 경찰에서 밝힌 책을 훔친 이유는 단순히 '책이 읽고 싶어서'였다. 특히 '채근담'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서정과 서사' 등 그가 훔친 책 중 30여권의 책이 인문학 분야였다.

증거물 확인을 위해 배씨의 집을 조사한 경찰은 "배씨 집 거실에 500여권이 넘는 책이 쌓여 있었다"며 "배씨가 인문학 분야에 깊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경인기자kki@kwangju.co.kr

'나이롱 환자' 파문 강진의료원 본격 수사

경찰, 감사 적발 39명 명단 넘겨받아

경찰이 의료진의 '나이롱 환자' 파문이 일어난 강진의료원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강진경찰서는 일반 휴가나 근무 기간 중에 입원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했다가 감사에 적발된 강진의료원 의료진 39명의 명단을 전남도로부터 받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근무 기록과 병원 간호 및 입·퇴원 기록 등을 조사해 의료법 위반이나 사기 등 혐의가 드러나면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개인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예정이다.

일부 의료진은 인력부족 탓에 아파도 병가를 내지 못한 채 입원한 상태에서 틈틈이 병원 업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실제 입원 및 치료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입원 후 민간보험금을 수령한 이들의 경우 허위 입원이 드러나면 보험 사기에 해당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지난 1월 정기감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의사·간호사·직원 등 44명이 병가를 내지 않고 일반 휴가나 근무 기간에 입원한 것으로 서류가 작성된 것을 적발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진의료원지부는 전남도와 노조,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공동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허위 입원뿐 아니라 인력 부족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공정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웃음꽃 핀 '세계 여성의 날'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광주지역 여성단체 회원들이 광주시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광주 여성 선언'을 발표한 뒤 '양성평등 실현' 등이 쓰인 팻말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광주 도심 이구아나 출현 소동

이색 반려동물 열풍 속 애완용 탈출한 듯…119 출동 포획

거미나 뱀 등 이색 반려동물 전성시대, 광주 도심에 이구아나가 출현해 경찰과 119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지난 7일 낮 12시47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도마뱀처럼 생긴 파충류가 돌아다닌다"는 주민 신고가 광주북부경찰서에 접수됐다.

출동한 두암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이 파충류의 기괴한 모습에 흠칫 놀랐다.

전체적으로 녹색과 갈색을 띤 이 파충류는 등 위쪽에 칼날 모양의 장식이 돌기처럼 돋아 있었고, 목 아래에는 주머니가 달려 있어 작은 공룡을 연상케 했다. 이따금 긴 혀를 날름거리던 이 파충류는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자 주머니가 달린 머리 등을 흔들기도 했다. 머리에서 꼬리까지는 70㎝에 달했다.

경찰관들은 우선 이 파충류가 다른 곳으로 벗어나 주민들을 놀라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변을 에워싸고 119구조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광주북부소방서 119구조대는 현장에서 구조장비로 파충류를 포획한 뒤 케이지에 담아 동물보호소에 인계했다. 이 파충류는 대형 도마뱀의 한 종인 이구아나로 확인됐다.

동물보호소 관계자는 "누군가 키우던 애완용 이구아나가 탈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파충류는 키우는 사람과는 달리 일반인들은 놀랄 수 있기 때문에 사육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돈에 물든 '타락 공무원'

뇌물 받고 건축허가·불법 알고도 묵인한 2명 적발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불법을 알고도 눈감아주는 등 공직사회 비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뇌물을 받고 건축허가를 내준 혐의(뇌물수수 등)로 광주 서구청 공무원 백모(54·5급)씨를, 산림훼손 사실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강모(51·6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백씨는 2015년 6월께 광주시 서구 모 한방병원의 진입로 건축허가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240만원 상당의 해외여행 경비와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백씨는 서구청 도시계획심의에서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이 병원 진입로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줬는데도 기부체납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뇌물을 받고 기부체납을 받아줬다. 건축주는 기부체납이 안 됐다는 이유로 준공날짜가 미뤄지자 이를 앞당기기 위해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또 친구가 운영하는 의료폐기물 수거업체를 이 병원에 소개, 계약을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같은 해 1월께 이 병원 진입로 공사과정에서 경사면의 토석 3000㎥를 채취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고발하지 않고 묵인해준 혐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분해 쉬운 고가 자전거 훔쳐 밀반출한 몽골인들 '쇠고랑'

쌍나팔

○…분해가 쉬운 고가의 자전거를 훔쳐 자국으로 밀반출한 몽골인 근로자들이 쇠고랑 신세.

○…8일 영암경찰에 따르면 몽골인 A(34)씨 등 3명은 지난 2일 밤 11시께 영암군 삼호읍의 한 아파트에 세워진 B(35)씨의 자전거(70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최근 한 달 새 영암과 목포를 돌며 자전거 18대(720만원 상당)를 훔쳐 분해한 뒤 택배를 이용해 고향집에 보냈다는 것.

○…지난해 4월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해 영암의 한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A씨 등은 버스를 타고 범행 대상지로 이동한 뒤 절단기로 자물쇠를 자르고 훔친 자전거를 타고 공장으로 돌아오는 수법을 써오다가 범행 장면이 담긴 CCTV화면을 단서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덜미.

/영암=문병선기자 moon@

신축상가 원룸 매매(전대정문)
전대 정문/후문 2분!(정문과후문사이)
(전대정문앞 모아아파트 후문앞 코너)
임대완료 정 남향 4층 주택
1층 (상가 2칸)
2층~3층 (원룸 6개, 투룸 2개)
4층 (주택)올 주택
(방 3개, 화장실 2개, 내부 깔끔한 화이트, 다용도실)
▣ 월수익 → 480만
▣ 매가 → 6억 8천만
(융 1억5천 보 1억5천) (실투자 3억 8천)
(※주인직매) 010-6670-9800

첨단지구 8층 상가, 건물매매
광주 최초 (연구소 전문건물)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
▣ 감정가 (분할시) → 56억
▣ 융자 → 26억 가능 (최대 31억 가능)
▣ 보 3억 월 3,000만
매가 → 38억
1층 (상가) 120평 (정원,잔디밭 사용가능)
2층~7층 (고급 오피스텔 룸) - 56개
8층 41평 (주택겸사무실)
(옥상 풀 사용가능, 정원,경치좋음)
010-7384-7800

㈜대신경매 법 률 경 매
(특수물건 추천)
1. 동구 계림동 (다가구 원룸) (토 90평, 건 203평) (1층~4층 총 룸 18개) 임대수익, 투자 가치 적합 계림동 홈플러스 남측 근처,재개발지역 부근 감정가 6억3천 → 최저가 3억5천
2. 광산구 우산동 (숙박시설) (토 150평,건444평) (1층 – 식당, 2층~5층 룸 50개) 하남 시영아파트 북측 인근 위치 – 상가지대 감정가 11억3천 → 최저가 7억9천
3. 서구 풍암동 (다가구 원룸) (토 74평,건131평) (1층~3층 총룸 12개) 아파트 밀집지역 감정가 5억 2천 → 최저가 3억 6천만
4. 남구 방림동 (근린시설) (토 207평, 건 333평) 삼일 아파트 단지 내, 주변 아파트단지, 코너자리 감정가 9억8천 → 최저가 5억5천
5. 서구 쌍촌동 (숙박시설) (토 90, 건 364평) 1층~5층 총룸 37개, 운천역 3분거리 감정가 12억 → 최저가 5억5천
6. 북구 중흥동 (모텔) (토 81평,건 298평) 월수익 약 900만가능, (5층 총룸 32개)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3억6천7백
수익성 상가 (주택)
1. 북구 두암동 (토 46평, 건 41평) 광주문화초등학교 남측, 차량 통행가능 감정가 1억2천 → 최저가 1억2천
2. 남구 양림동 (토40평,건25평) 학강초등학교 북서측, 본건차량가능 감정가7천1백 → 최저가 7천1백
3. 북구 중흥동 (토 46평,건50평) 건물 깨끗, 실입주 주택 적극추천 감정가1억2천 → 최저가 8천5백
수익성 상가 (다가구 원룸)
1. 서구 농성동 (토 41평, 건 45평) (1층 점포, 2층주택) 6차선 도로 접 감정가 2억 → 최저가 2억
2. 서구 풍암동 (토 68평,건 170평) (1층 식당, 2층 사무실,3층주택)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4억5천
3. 동구 충장로 (토 34 평, 건 44평) (1층 식당,2층 주택) 차선도로 접, 우리은행 광주지점 부근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실전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
경매기본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직원구합니다.
부동산, 경매 배우실분.
부동산 자격증있으신분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분 환영합니다.
010-6834-4800 010-6832-9700